

중기청, 공공구매활성화를 위해 종합정보시스템구축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및 중간 경쟁제도의 본격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구매 정보망(www.smpp.go.kr)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구매시장의 변화에 중소기업이 적극대처하고 판로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 본격 가동을 앞두고 시험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비롯한 신규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공공기관의 입찰정보와 기업 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인증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구매정보망은 10월 중 실사용자만 월 2만건 이상 접속했고, 특히 각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이 주로 접속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DB구축작업을 마치게 되면 성능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과 더불어 인증제품의 사진 정보를 포함한 자세한 정보도 제공한다. 따라서 많은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정보열람을 할 수 있게 되어 구매촉진의 역할이 기대된다.

정통부, 400억 규모 IT투자조합 결성

정보통신부(장관 노준형)가 내년 IT전문투자조합을 결성, IT투자를 재개한다.

올해 중단됐던 정부의 IT기술투자사업 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중소 IT기업의 자금부족 해소나 IT투자 활성화 등도 기대된다.

정통부는 지난 13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정부 출자 150억원을 포함한 민관 총 400억원 규모의 IT기술개발 투자조합을 결성, IT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손승헌 중소기업지원팀장은 "예산이나 사업계획 등이 확정돼야 하지만 일단은 M&A 소프트웨어분야, 해외진출 지원 등 특화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1~2개 펀드를 결성,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 모토로라 R&D 센터 유치

정보통신부는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USN) 분야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해외 R&D센터로 광대역 통신 분야 기업인 모토로라의 T2T(Things-to-Things) 리서치 센터를 유치하고, 지난 11월 16일 R&D 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모토로라측은 이 연구소를 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IT839전략의 3대 인프라중 하나인 USN분야 연구를 위하여 ETRI와의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U-City적용을 위한 센서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USN 애플리케이션과 미들웨어 등의 핵심기술을 공동개발, 이를 최종적으로 상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T2T 리서치 센터 설립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는 고성장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 IT기술력 제고와 연구개발 시스템의 선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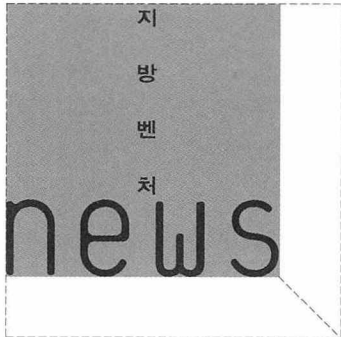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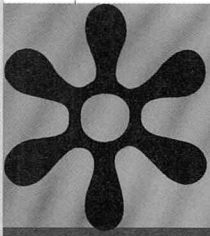
산자부, 한국 '지상파 DMB 수신기' 국제표준으로 채택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지난 9월과 10월에 독일과 영국에서 각각 열린 IEC 기술위원회(TC) 총회에서 '지상파 DMB 수신기', '반도체 습도센서' 등 6종의 기술표준을 제안, 정식 프로젝트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IEC에서 제정중인 반도체(센서 & 초소형전자소자)분야 국제표준 규격 12개 중 10개를 우리나라가 제안, 국제표준 선도국가임을 과시했다. 또한 채택된 6개 기술표준의 프로젝트 리더(Project Leader)로 한국산업기술대 이재영 교수, 경북대 박세광 교수 등 6명이 수임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안한 기술 중 '지상파 DMB(T-DMB)수신기'는 세계 최초 서비스를 바탕으로 기술력이 검증되었으며, 표준화가 완료되면 세계 단말기시장을 선점해, 단말기 수출과 함께 MPEG특허료(세계 15% 보유)에 따른 부가 수입이 가능하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6건의 국제표준 제안과 프로젝트 리더 선임에 따라 지상파 DMB수신기 선도국임을 입증하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생산 뿐 아니라 기술표준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경기도 · KOTRA · 성남시, 세계적 아날로그 반도체 R&D센터 성남 킨스타워에 공동 유치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KOTRA(사장 홍기화), 성남시(시장 이대엽)는 세계 유수의 반도체 개발 · 생산 전문기업

인 미국의 아날로그 디바이시스(이하 ADI)의 반도체 IC 관련 R&D센터 투자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공동 MOU내용에 따르면 ADI는 향후 3년간 3천만불을 투자하여 60명 내외의 연구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KOTRA는 외국 R&D센터 유치를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인력 채용과 인력양성 자금을 지원하고, 경기도와 성남시에서는 킨스타워에 R&D센터 설립공간을 지원하기로 했다.

ADI의 로버트 맥아담 부사장은 "이번에 설립될 R&D센터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제품의 핵심기술인 전력관리 반도체 칩 개발이 주요 사업으로,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설계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반도체 설계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년 말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이면 본격적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전주첨단산업 조성에 13억 추가 지원

전북도(도지사 김완주)는 전주시가 내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팔복동 옛 기능대 부지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1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를 주축으로 부품소재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이 일대는 첨단벤처산업단지로서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이다. 도는 전략산업 육성 시책에 따라 해당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전주시가 도심 내부 개발 일환으로 기능대 부지 인근 8,000평에 추진 중인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총 6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미 이중 3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미 집행금 중 13억원을 내년에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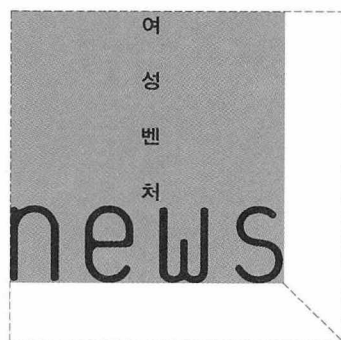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 특성 살린 IT산업 집중육성

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김규철)은 부산 지역의 핵심 산업인 항만 물류,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분야와 연계해 특화된 IT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의 IT · 벤처산업지원을 관장하는 제3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에 선임된 김규철(54)원장은 "IT산업도 이제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조선 · 해양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인 영국 아베바사가 1,100만달러를 투자해 내년 1월 부산 해운대구 센텀벤처타운에 차세대 조선 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시아 R&D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이는 한국의 조선사업과 부산의 해양 물류기반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밝혔다.

이어 김규철 원장은 "지역 IT · 벤처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 없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해외나 인근 지역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길밖에 없다"며 "정부와 IT업체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여성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 일 시: 2006년 12월 7일 (목), 오후 3시~5시
- 장 소: 한국산업기술센터 16층 중회의실
- 주 체: 중소기업청
- 주 관: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개발원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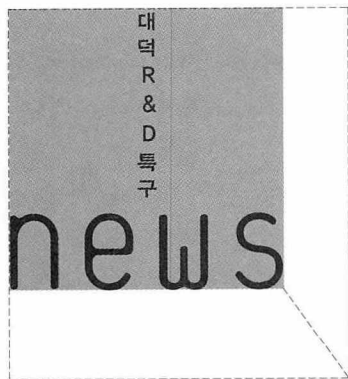
- 발 제 1: 자금조달에 있어서의 여성기업의 차별경험 조사 (임희정,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발 제 2: 여성기업 금융지원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양인숙,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한국여성벤처협회 신규회원 발표

지난 11월 총 9개 업체가 여성벤처협회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

- **하교(대표 김성애)** : 서적, 기독교 교구 및 문화컨텐츠
- **에코웍스(대표 고영란)** : 바이오 침구류 등
- **김미라세무회계사무소(대표 김미라)** : 세무서비스
- **온라인투어(대표 박혜원)** : 항공권 판매대행, 여행 알선 서비스
- **대진로오드(대표 성연숙)** : 가방제조
- **창평어패럴(대표 김선미)** : 여성의류제조
- **디자인그룹유평(대표 김은경)** : 인테리어디자인
- **임산부닷컴(대표 태성희)** : 임산부관련 포털 서비스
- **세무사박소영사무소(대표 박소영)** : 세무서비스

회원가입 안내 및 가입특전 등 회원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ovwa.or.kr) 참조.



대덕특구 '하이-업', 지역혁신박람회서 대통령상 수상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박인철)가 미국 현지 벤치마킹 등 치밀한 기획과정을 거쳐 올 4월부터 수행한 '하이-업' 프로그램이 국가균형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클러스터 부

문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덕R&D특구 내 기술창업활성화와 성공적인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대덕 하이-업(High-up)'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미국 샌디에고 UCSD커넥트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스프링보드'를 대덕특구 특성에 맞게 재설계한 것. 특구 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창업 및 성장·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첨단기술사업화사업에 5개 과제 선정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박인철)와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전채근)은 '첨단기술사업화 시범사업'의 5개 과제를 선정, 과제수행 협약을 체결했다.

선정 과제는 ▲UV-embossing기술을 이용한 중대형 스템퍼와 도광판 제조(주관-포스트마이크로(대표 임지연)) ▲단거리 전용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지점방송(LLB) 서비스 제공장치 및 ETC겸용 지점방송 수신단말기 개발(주관-에이티엔(대표 최재문)) ▲CNF의 전계방출을 이용한 FE-lamp개발(주관-넥센나노텍(대표 정한기)) ▲소형의 고성능 RF필터 제품기술 개발(주관-씨아이제이(대표 백종태)) ▲나노금속 CNT복합체 생산공정 개발(주관-바이오니아(대표 박한오)) 등이다.

이 사업은 특구 및 대전지역에 본사를 둔 IT 및 IT기반 5T(BT, CT, NT, ST, ET)융합 첨단기술에 대해 연구소 및 대학 등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시장이 요구하는 제품의 성능 및 가격 등이 적합한지를 예상 수요처에 시범적으로 적용, 검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첨단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모델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은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이며, 기업이 30% 매칭(현금) 방식으로 진행된다. 2007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대덕특구-중국 무한시, 교류 협정 체결

대전광역시(시장 박성효)와 중국 무한시(시장 리시엔성(李憲生))는 지난 11월 1일 무한시 샹그리라호텔에서 양 지역의 경제 및 과학기술 교류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향후 양 지역은 경제 및 과학기술 교류협력과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정보 및 인력, 상품, 기술교류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 양 지역 간 활발한 경제 및 과학기술 교류에 힘을 모으기로 협의했다.

이어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박인철 이사장과 무한 동호 신기술 개발구 탕량쯔(唐良智) 주임도 양 연구 특구 간 협력을 다짐하는 협정을 체결해 앞으로 기술과 연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예상된다.